

**GREENPEACE**

2014 | 가을호

© Jim Pezzac / Greenpeace



# IMPACT REPORT

#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그린피스가 이 길을 걸어온 지도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린피스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모두 3백만 명이 넘는 그린피스 후원자 분의 도움으로 이뤄 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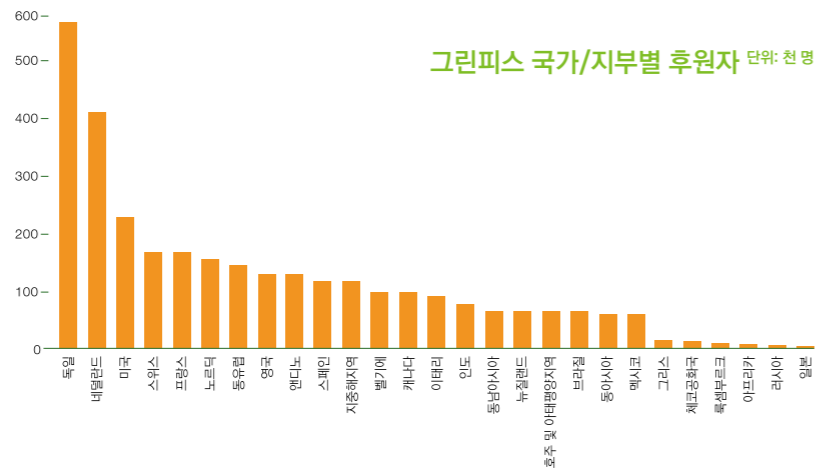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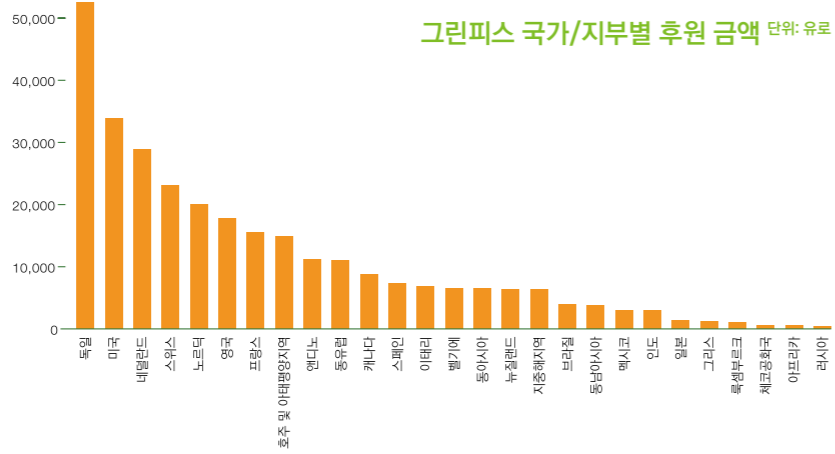
여러분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봉사자와 액션 참여뿐 아니라 후원을 통해 그린피스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큰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그린피스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린피스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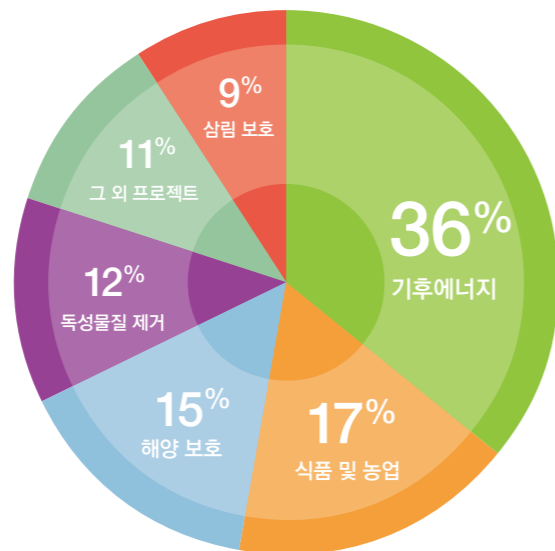
# 순서

그린피스 후원 현황	04
그린피스 캠페인 소개	06
그린피스의 IDEAL이란	07
Investigate (조사)	08
북극 보호 캠페인	
Document (기록)	10
탈핵 캠페인	
Expose (폭로)	12
축구 디톡스 캠페인	
Act & Lobby (행동과 로비)	14
해양 보호 캠페인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	16
그린피스 후원자 이야기	18
그린피스 자원봉사자 이야기	19

## 2013 그린피스 전 세계 후원 현황



## 2013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동아시아지부에 속해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 2014 상반기 캠페인 하이라이트

그린피스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린피스는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supporter.kr@greenpeace.org 또는 02-3144-1997로 연락주세요.

### 기후에너지 캠페인

- ▶ 7월부터 두 달 동안, 레고와 셸(Shell)을 대상으로 하는 북극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8월 말까지 전 세계 8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 ▶ 5월 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핵발전소 사고 시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인 비상계획구역이 그린피스의 요구대로 기존 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된 것입니다.

### 해양 보호 캠페인

- ▶ 7월 말,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에 인성 7호를 즉각 안전하게 주변 항구로 강제 귀항시킬 것을 탄원서로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는 인성 7호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 조치를 즉각 결정했습니다.
- ▶ 6월 9일, 그린피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양수산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제시한 개혁안을 통해 불법어업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현재 법안의 허점을 철저히 봉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 ▶ 그린피스는 5월부터 한 달간 축구 디톡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디다스는 2020년까지 자사 제품에서 독성물질을 제대로 제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삼림보호 캠페인

- ▶ 6월, 일본의 거대 소비재 기업인 카오(Kao) 그룹이 삼림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숲을 파괴하며 생산하는 팜유(Palm Oil) 대신,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 여러 달에 걸친 그린피스의 로비 활동 끝에,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자사 제품에서 삼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존슨앤드존슨과 함께 일하는 하청업체도 삼림 보호를 위해 변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 ▶ 작년 삼림 보호를 약속했던 APP가 지난 4월 말부터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PP는 주주들과 함께 1백만 헥타르(ha)에 이르는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할 것이고, APP의 공급업체도 삼림 보호를 위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

- ▶ 5월 13일, 그린피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후베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불법 유전자조작 쌀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 Harstad Barne / Greenpeace

# 그린피스 캠페인 소개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남겨주고자 노력합니다.

## 기후에너지

**북극 보호** | 많은 석유기업들은 북극에서 무분별하게 원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파괴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북극 보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탈핵** | 그린피스는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증명된 것처럼 핵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위험하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요구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 기후변화에 맞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핵 에너지와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추구합니다.

## 해양 보호

**불법어업 근절** | 그린피스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법어업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말하며, 국내외 법을 지키지 않는 어업활동을 뜻합니다. 현재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지키고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착한 참치 요구** | 그린피스는 '참치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참치 기업들에 '착한 참치' 출시를 요구합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참치를 잡기 위해 집어장치와 같은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바다 생명체의 남획과 혼획을 초래합니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을 지향합니다.

## 독성물질 제거

그린피스는 의류 브랜드를 상대로 공급망과 제품에서 모든 독성물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류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생산과정뿐 아니라, 세탁 시에도 배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 삼림 보호

삼림 보호 캠페인은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삼림지대 지역 사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린피스는 2020년을 목표로, 전 세계적인 삼림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건강한 식품 및 농업

그린피스는 건강한 식품과 농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경작을 저해하는 산업형 농업은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사라져가는 벌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는 다양한 품종을 건강한 방식으로 기르는 생태농업을 추구합니다.



# 그린피스의 IDEAL이란?

그린피스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폭로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환경 문제를 보여주며, 해결책 도입을 위해 로비합니다. 이러한 IDEAL 활동방식은 그린피스의 모든 캠페인에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린피스는 전 세계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해결합니다.



## 조사 Investigate

그린피스는 환경에 대한 만행을 조사하고 공개합니다. 철저한 과학적 조사는 그린피스 캠페인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증거와 샘플을 수집하고, 독립적인 연구소와 함께 그 샘플을 실험하고, 분석합니다.



## 기록 Document

그린피스의 기본 가치 중 하나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린피스는 환경 재난을 직접 목격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환경을 파괴한 사건과 피해자들이 잊혀지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폭로 Expose

많은 기업들은 환경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생활용품 뒤에 감춰진 진실을 폭로합니다.



## 행동 Act

그린피스는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은 '비폭력 직접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 NVDA)'으로, 그린피스는 행동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 로비 Lobby

그린피스는 정부, 기업과 대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해결책 도입을 촉구합니다.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북극을 지켜주세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은 원래 서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 배우 주드 로(Jude Law)

© Daniela Batta / Greenpeace



미국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지금의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곰의 2/3는 205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

## 사라지고 있는 북극

북극은 전 세계 바다의 3%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얼음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극은 지구의 꼭대기에 있어, 러시아, 캐나다, 알래스카 등에 인접해 있으며, 추울 때는 영하 40도 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극에는 북극곰, 물개, 바다코끼리, 17종의 고래, 수백 마리의 바다새 등 다양한 동물들이 빙하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이 지금도 계속 녹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이미 북극 빙하의 3/4을 잃었습니다. '지구의 냉장고'라 불리는 북극 빙하는 지구의 기후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빙하는 빛을 반사하지만, 바다는 빛을 흡수합니다. 빙하가 녹아가면서 바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빛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해진 북극에서 원유를 시추하다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북극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원유는 냉혹한 기후에서 다른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빙하 아래 또는 빙하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떠다니는 유빙을 통해 기름이



멀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89년 3월,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의 기름 유출 사고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상황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2년부터 강력한 북극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셸(Shell), 가스프롬(Gazprom), BP 등 거대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북극에서 원유시추를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이나 브랜드들에도 북극 보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린피스는 북극의 상황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액션을 벌이는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레고, 셸과 손잡지 마세요

지난 7월부터, 그린피스는 레고와 셸을 대상으로 북극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셸은 북극에서 원유를 시추하면서, 전 세계인이 사랑

하는 브랜드인 레고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레고에 셸과 파트너십을 끊고, 북극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레고로만든 북극이 검은 기름에 잠기는 동영상을 만들고, 레고와 셸 본사 앞에서 액션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극곰 인형인 '폴린'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8월 말까지 전 세계 8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동참한 북극 보호 캠페인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 후쿠시마를 잊지 마세요

“무언가를 잊는다는 것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전쟁이 어떠했는지 잊은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촉발시키지요. 그 후에 재앙은 몇몇 소수의 문제로만 치부됩니다. 망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고통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전하는 오카와라 타츠코씨



© Alex Heford / Greenpeace

작년 7월 9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5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공에서 부실한 방재계획의 개선을 요구하는 액션을 펼쳤습니다.

‘25km’라고 적힌 배너의 메시지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25km 안에 있는 광안리도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작년 7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인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와 함께 한 습투어를 기억하시나요? 인천과 부산을 방문한 습투어는 탈핵 캠페인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 ‘방사능 방재계획 2013: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를 발표하여, 비현실적인 방재계획을 지적하며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범위를 기존 8~10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탈핵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안대교 위에서 펼쳤던 배너 액션은 위험한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안대교 액션을 계기로,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방재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방재계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부산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DON'T FORGET FUKUSHIMA

올해 3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후쿠시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린피스 탈핵 캠페이너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일반인 참가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자력 산업계와 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며,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방문 후, 그린피스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3주기 탈핵 문화제’에 참여하여 피해자들 이야기의 증언자가 되어 탈핵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후쿠시마에 함께 갔던 생태주의 예술가 윤호섭 교수도 참여하여, 그린피스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직접 그려줬습니다.

마침내 지난 5월 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발전소에서 반경 8~10km에 그쳤던 기초 지역(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법률 개정이 방재계획의 실질적 개선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린피스는 개정에 이어 종합적인 방재계획 개선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재계획은 탈핵입니다. 그린피스의 탈핵 캠페인은 방재계획 개선에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단계적 탈핵 로드맵 수립을 위해 계속될 것입니다.



# 독성물질 퇴장

“스포츠 정신은 정정당한 페어플레이입니다. 아디다스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제품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스포츠 문화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 축구 디톡스 액션에 참여한 이은정 거리모금가

© Daniel Mueller / Greenpeace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Brazuca)에서 NPEs가 검출되었습니다. NPEs는 환경에 배출되면 노닐페놀(NP)로 분해되며, 이는 독성이 있는 호르몬 교란 물질입니다.

폭로

## 스포츠 브랜드에 던지는 레드카드

올해 5월, 그린피스는 '축구 디톡스' 캠페인을 시작하며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축구 용품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폭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에서 총 33개의 축구 용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사했는데, 모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제품으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그린피스의 보고서 '스포츠 브랜드에 던지는 레드 카드: 월드컵 용품 독성물질 조사'는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제품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디다스 아디제로(Adizero) 축구화에서는 PFOA와 DMF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디다스 축구화에서 검출된 PFOA는 이번에 조사한 전 세계 아디다스 축구화 중 두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그 수치는 아디다스 자체 규제 한도의 6.8배에 달합니다. PFOA는 부분적으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성질 때문에, 생식 및 면역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검출된 130mg/kg의 DMF는 독일 유해 물질 위원회가 정한 한도의 13배에 이릅니다. DMF는 살갓에 닿을 때 독성이 심하며, 특히 태아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34개 도시에서 액션을 통해 아디다스에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있었던 5월 28일, 1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독성물질 퇴장', 'DETOX NOW'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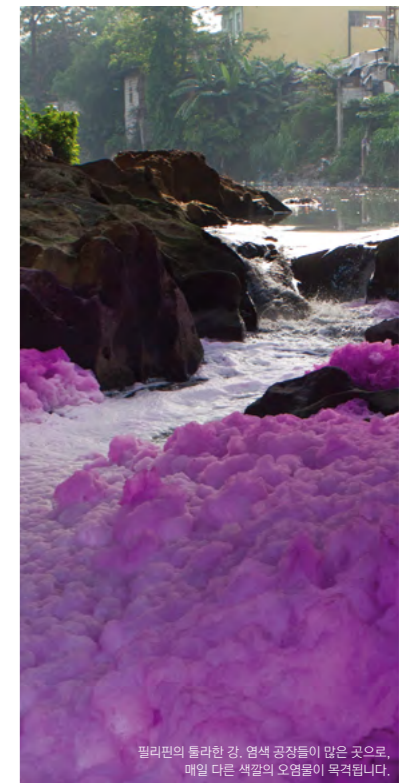
그린피스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아디다스는 독성물질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아디다스는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디톡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과불화 화합물(PFCs)을 2020년까지 100%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아디다스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독성 물질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에도 합의하여 2016년까지 전체 공급량의 80%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DETOX OUR FUTURE

지난 2011년 7월에 시작한 그린피스의 디톡스 캠페인은 우리가 입을 옷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류 제품에 함유된 독성물질은 생산 과정과 공급망뿐 아니라 세탁 시에도 배출되어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3억 2천 명입니다.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디톡스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미 20개의 의류 브랜드들이(H&M, 망고, 리바이스, 유니클로, 베네통, 버버리, 아디다스 등) 독성물질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함께 행동한 모든 사람들이 이뤄 낸 승리입니다.



필리핀의 툴라한 강. 염색 공장들이 많은 곳으로, 매일 다른 색깔의 오염물이 목격됩니다.

# 불법어업 없는 바다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획, 오염, 산성화로 인한 해양 환경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

© Alex Hordley / Greenpeace

지난 7월 21일부터 그린피스는 한 달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 부스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2,700여 명의 의견은 향후 해양 캠페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불법어업, 한국의 수치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IUU)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총칭하는 말로, 법을 지키지 않는 어업활동을 뜻합니다. 한국 원양어선이 전 세계 해역에서 자행하는 불법어업은 심각합니다. 작년 4월,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와 함께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후 7월,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졸속 개정으로 인해 범망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제 법규 및 협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11월, 유럽연합(EU)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그린피스는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원양수산업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원양산업

을 규제하는 법안인 원양산업발전법은 여전히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그 허점을 철저히 봉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방한하여, 작년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국내 원양산업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첫 날이기도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vs 원양업계, 지금은 불법어업 전쟁 중

한국 불법어업의 최근 사례는 ‘인성 7호’입니다. 한국의 원양어선인 인성 7호는 작년에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수차례 침범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이빨고기를 어획했습니다. 이런 불법어업 혐의로

해양수산부가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인성 7호는 9개월간 공해를 떠돌며 선원들의 생명을담보로 해양수산부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어획증명서가 없는 원양어선은 주변국에 입항할 때 어획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7월 24일, 해양수산부에 인성 7호를 즉각 안전하게 주변 항구로 강제 귀항시킬 것을 탄원서로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인성 7호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성 3호는 여전히 이빨고기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유럽연합은 불법어업국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 전 협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여전히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로 유예하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여전히 미진함을 의미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 원양수산업정책의 개정과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 사라지는 벌

“벌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그로부터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벌이 없다면, 수분(受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 Tomasz Helasz / Greenpeace

그린피스는 건강한 식품과 농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산업형 농업을 문제 삼으며, 벌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기대할 수 있는 생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벌과 인간은 서로가 필요해



산업형 농업 시스템 때문에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형 농업은 바이어(Bayer), 바스프(BASF) 등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권장하는 농업방식으로, 넓은 땅에 단일작물을 재배하면서 엄청난 비료를 사용합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벌의 수는 40% 감소했습니다. 벌은 먹을 것을 찾아 다니거나 벌집에 머무는 동안 살충제,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질에 오염된 꽃가루는 벌 개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는 벌 무리 전체에 단백질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먹이기기 때문입니다.

벌의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벌은 생물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벌을 비롯한 꽃가루받이 곤충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 중 1/3, 그리고 지구상에서 꽃을 피우는 모든 식물은 벌과 기타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해 수분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분의 가치는 연간 약 379조 원에 이릅니다.

##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농업

그린피스는 생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생태농업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사용하며,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농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태농업을 하면 1헥타르(ha)당 30%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농업은 단일 작물에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작물 선택권도 줍니다.

생태농업의 성공 사례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학자들이 단일



작물로만 재배한 옥수수밭과 다양한 작물로 간직한 옥수수밭을 비교한 결과, 간직한 벌이 100% 이상 높은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중국 윈난 지역의 농부들과 과학자들은 벼의 도열병과 관련하여, 단일작물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 경우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생태농업에서 도열병이 94% 적게 나타났으며, 생산량도 단일작물 재배에 비해 89% 많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5월, ‘꿀벌 계획-농약없이 살기(Plan Bee-Living Without Pesticide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생태농업이 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달 14일에는 유럽의 110개 도시에서 1천 명의 그린피스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들이 벌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는 액션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 사무소는 6월부터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생태농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도 그린피스 후원자예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세계 곳곳에 있는 다른 사무소에 비하면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소한 지 2년 남짓 됐으며, 모금 활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딛고 있지만, 서울 사무소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든든합니다. 올해 2월부터 후원자로 함께 한 서울 계성초등학교 3학년 권동욱 군이 박지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그린피스에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7살 때, 우연히 캐나다 관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린피스가 소개되어어요. 그린피스가 물고기를 마구 잡는 어선을 감시한다고 나왔는데, 저도 그 배를 타고 오염되지 않는 바다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린피스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린피스를 검색해보고, 기사를 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던 중, 서울 사무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후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학교에 갈 때는 셔틀버스를 타서 용돈을 받지 않는데요. 제가 후원을 하고 싶으면 용돈을 주시겠다며, 엄마가 그린피스에 후원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신청했고, 제가 받은 첫 용돈 만원과 엄마가 보태 주시는 돈을 합쳐 첫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 가장 관심이 많은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그린피스에서 하는 모든 캠페인에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했던 독성물질 반대운동도 제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고 좋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아디다스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독성물질 제거를 약속해주시기 좋았어요. 올해 제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뉴스 인데요.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저도 이번 여름방학에 북극 보호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른들 눈에는 제가 어려 보이기만 하겠지만, 저 같은 초등학생들도 지구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 그린피스 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마음 속으로 걱정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누군가도 필요하죠. 우리 대신 그리고 말 못하는 지구를 대신해주는 그린피스를 위해 앞으로도 오래 오래 후원을 멈추지 말고, 저와 함께 응원해요!

권동욱 군은 그린피스가 현재보다 더 많은 사무소를 열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동욱 군의 바람처럼, 전 지구에 환경 보호를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매진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자 이야기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서울 사무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함께 해왔습니다. 2012년 4월, 서울 사무소의 첫 쉽투어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로 그리고 이제는 후원자로 함께 하고 있는 이난새, 이여해 자매를 만나봤습니다.



좌측 이여해님/ 우측 이난새님

### 난새씨는 현재 직장인이고, 여해씨는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은 그린피스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여해** | 저는 그린피스 본부로부터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다가, 2011년 말에 서울 사무소 개소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 홈페이지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바로 등록했죠. 2012년 첫 쉽투어 전에, 서울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동생인 우빈이와 참여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쉽투어 소식을 듣고, 쉽투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난새** | 어렸을 때, 환경 다큐멘터를 봤는데 부산 앞바다에 귀신고래가 지나가면 그린피스 직원들이 인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린피스 활동에 계속 관심이 있었죠.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모임에 다녀온 동생들의 얘기를 들으니, 주말에 그냥 놀기 보다는 봉사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 모두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로 첫 쉽투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그동안 두 분은 어떤 활동에 참여했나요?

**난새** | 저희는 2012년 4월 쉽투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기념행사와 7월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쉽투어에 참여했죠.

**여해** | 저는 2012년 7월에 했던 여수 박람회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 제일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요?

**여해** | 처음으로 참여했던 2012년 쉽투어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때, 저는 '에너지 혁명' 보고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간략하게 설명

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원래 남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쉽투어의 방문객들이 저를 격려해주기도 했고, 저도 평소 몰랐던 걸 설명하면서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린피스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보수적인 한국에 비해, 국제 단체인 그린피스는 개방적이었어요.

### 그린피스 후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난새** | 그린피스 후원자들도 봉사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린피스가 직장인을 많이 배려해주거든요. 지금은 저와 같은 직장인이 생각만큼 없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직장인 자원봉사자를 기대해봅니다.

봉사활동으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와 연을 맺어 현재는 후원까지 하고 있는 이난새, 이여해씨. 두 분은 앞으로도 그린피스 봉사활동에 함께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액션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한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도록 서울 사무소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린피스는 비영리 독립 캠페인 단체로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해 활동하며 이를 통해 지구 환경  
보호와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린피스가 힘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린피스는 존재합니다.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20-11 2층

t. 02-3144-1997

e. supporter.kr@greenpeace.org

h. www.greenpeace.org/korea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소식지의 표지는 친환경종이, 내지는 100%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